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초기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

201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구 성 희

초기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 지각된 배우자 지지의 매개효과 -

채 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구 성 희

인 준 서

구성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결혼관계에서 초기 부적응도식이 부부 간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 지지가 매개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국의 기혼 남녀 345명이었으며, Young 도식 질문지 단축형(YSQ-S : Young Schema Questionnaire), 성인기 낭만적 애착 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지각된 배우자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해 얻은 자료는 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부적응도식은 종속변인인 성인애착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배우자지지와는 부적상관을 드러냈다. 이는 초기 부적응도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이 불안정해지고, 상대 배우자의 지지를 낮게 지각함을 의미한다. 또한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배우자지지는 초기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과의 관계 사이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중다회귀분석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부적응도식은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속변인의 하위요인(회피, 불안)으로 나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요인 모두 지각된 배우자지지

의 유의한 매개효과를 보였다. 특히 성인애착의 회피요인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검증하고, 각 변인들의 하위요인 간의 연결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해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과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부분매개모형 간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어, 부분매개모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적응도식, 성인애착, 배우자애착, 배우자지지, 매개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II. 이론적 배경

1. 초기 부적응도식 5

1.1 초기 부적응도식의 정의 5

1.2 초기 부적응도식의 형성과 유지 7

1.3 초기 부적응도식의 종류와 범주화된 요인 8

1.4 초기 부적응도식과 결혼관련 연구와의 관계 11

2. 성인애착 12

2.1 성인애착의 정의 12

2.2 성인애착의 유형 14

2.3 성인애착과 결혼과의 관계 16

2.4 성인애착의 변화 가능성 17

2.5 성인애착과 초기 부적응도식 간의 관계 18

3. 지각된 배우자지지 20

3.1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정의 20

3.2 배우자지지와 초기 부적응도식, 성인애착과의 관계 21

III. 연구문제 및 가설 23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4

2. 측정도구	25
2.1 부적응도식 척도	25
2.2 성인애착 척도	26
2.3 지각된 배우자지지 척도	27
3. 연구모형	28
4. 자료의 분석	29

V.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30
2.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31
3.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33
3.1 초기 부적응도식과 전체 성인애착 사이의 배우자지지 매개효과	33
3.2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회피요인 사이의 배우자지지 매개효과	35
3.3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불안요인 사이의 배우자지지 매개효과	36
4.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37
4.1 배우자지지 매개모형 검증	38
4.2 모형에서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40
4.3 직접, 간접 효과	41

VI. 논의 및 제언

1. 논의	43
-------------	----

2. 제한점 및 제언 47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24
<표 2> 초기 부적응도식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25
<표 3> 성인애착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26
<표 4> 지각된 배우자지지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27
<표 5> 변인별 내용과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와 첨도	30
<표 6> 각 변인 간 상관계수	32
<표 7>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 지의 매개효과	34
<표 8> 초기 부적응도식과 회피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35
<표 9> 초기 부적응도식과 불안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36
<표 10> 경쟁모형의 적합도	39
<표 11>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41
<표 12>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	42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모형	28
<그림 2> 각 변인들과 하위요인들	28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38
<그림 4> 초기 부적응도식, 지각된 배우자지지, 성인애착의 경로 계수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가정은 개인주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개방성, 산업화와 같은 변화들을 맞이하며 그 형태가 다양해졌고, 핵가족화 되었으며, 또한 가정에 대한 가치관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던 전통사회와 다르게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에 더 치중하는 쪽으로 변화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발전된 것과 같은 긍정적 측면들도 불러일으켰으나 가정의 정서적 역할이 감소되거나, 이혼율이 늘어나는 등의 부정적 측면들도 함께 동반시켰다. 그러면서 부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났고, 부부상담이나 부부치료의 필요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상담 및 심리치료 방면의 전문가들은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하고,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시키고자 효과적인 부부상담 및 치료를 하기 위한 이론들을 연구하고 적용해나갔다. 초기의 부부치료 이론은 가족치료 안에서 출발하고 발전되어 왔다(Jacobson & Gurman, 1995). 이후 1970년대에 행동치료가 가족치료에 적용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들어서는 행동치료적인 개입에 인지치료적인 요인들을 통합한 인지행동부부치료가 폭넓게 적용되었다(정교영, 신희천, 2007). 인지행동적 이론은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유지되는지에 대해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부부문제와 관련된 요인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준다는 장점으로 인해 부부치료 분야에서 주요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Dattilio, 1993). 부부문제를 다루는 인지행동적 접근의 연구자들은 인지, 행동, 정서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

한 행동과 정서에 인지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부부관계에서의 역기능을 매개한다고 가정한다(Dattilio & Padesky, 1990). 그러나 최근 통합적 심리치료 이론을 지향하는 흐름에 동반하여, 인지행동적 접근의 부부치료 영역에서도 부부의 독특한 특징(성격), 외부 환경요인, 정서의 중요성을 포함한 인지, 정서, 행동의 역할을 균형 있게 인식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졌으며(Baucom et al, 2002), 확장된 모델에서는 부부문제에 기여하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부부관계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정교영, 신희천, 2007).

최근 들어 결혼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부부 개인이 지닌 특성으로 성인기의 애착 유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애착이론을 확립한 Bowlby(1979)는 ‘애착 과정이 인간을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는데, 초기 애착이론에서는 아동에 초점이 맞춰지다가 근래 성인기로 적용되는 연구들이 늘어난 추세이다. 성인기의 애착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어떤 애착관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연인이나 부부 같은 애정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이다. 전자는 아동기 애착경험이 성인기에까지 연장되는가 하는 애착안정성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부모 이외의 친밀한 대상에 대한 성인기 애착이 사회적 적응 등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라는 애착이론의 전제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숙 외, 1999; 홍혜정, 2004). 그리고 Hazan 과 Shaver가 ‘낭만적 성인애착’을 개념화한 후 최근까지, 성인애착이 결혼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뒷받

침되고 있어(Kobak & Hazan, 1991; 한혜영, 2006; 김광은, 2005), 부부치료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이 부부치료를 통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려 하였다. 만일 배우자와의 성인애착이 변화가 능하지 않은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개념일 뿐이라면, 부부의 관계패턴은 변화되지 못할 것이므로 치료 장면에서 그 의의가 축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달심리학자들은 애착을 결정하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두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경험으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며 상호확증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주장하며(Bowlby, 1973; Bretherton, 1985), 애착의 변화 가능한 것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므로 애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치료적 요소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 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중 인지행동 부부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탐색하였더니, Bowlby의 영향을 일부분 받아 형성된 초기 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초기 부적응도식은 Young(1990)이 개발한 통합적 심리치료 모델인 심리도식치료(schema therapy)의 개념 중 하나이다. 이는 인지적 측면의 역동뿐만 아니라 정서와 발달적 측면의 역동도 포함시킨 개념으로, 생애 초기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개인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Bowlby(1973) 애착이론의 내적 작동모델의 개념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Young, 2003). 특히 Young(2000)은 심리도식치료가 부부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를 부부가 자신 및 상대방의 심리도식(초기 부적응도식)을 이해하고, 치유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Young, 2003).

한편 배우자를 이해하고 돕는 활동은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지지 또한 성인애착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제로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의 안정에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는 배우자가 기혼자들에게 애착관계 상의 인물들 중 가장 가까이에서 머물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지지는 그 자체로써 순수하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지지를 받는 개인의 인지적인 틀을 거쳐 지각된 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선행연구들은 제시하고 있다(Cohen & Syme 1985; Wethington & Kessler, 198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제공받은 배우자의 지지가 초기 부적응도식이라는 인지적 기제의 영향을 받고나서 배우자와의 애착관계에 기여를 하리라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함으로써 부부치료 영역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하고, 결혼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초기 부적응도식

1.1 초기 부적응도식의 정의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를 개발한 Beck은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으며, 사람들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고 보았다(Ellis, 1962; Beck, 1964; Beck, 1995). 이것은 ‘인지도식(cognitive schema)’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는데, 개인이 자극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의미를 해석하며, 주관적 경험을 나름대로 조직화하는 인지적인 틀을 의미한다(Beck et al, 1979; Beck, Emery & Greenberg, 1985).

Beck의 영향을 받은 Young(2003)은 인지도식들 중 대다수가 생애초기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정교해지면서 생애 후기의 경험들에 중첩되고, 심지어 더 이상 기존의 도식을 적용할 수 없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그래서 내담자가 지닌 문제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며(유성진, 권석만, 2008), 초기 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초기 부적응도식이란, 유기, 학대, 무시, 거절 등을 포함하는 생애초기의 유해한 경험들에 의해 일차적으로 발달한 심리도식들을 의미한다. 이는 일생동안 지속되어 전 생애를 통해 정교화 되며, 심각한 부적응을 일으키고,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Young, 1990, 1999; 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러한 초기의 부적응도식들은 여러 가지 정의적 특성을 가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Young, 1990).

- (1) 대부분의 초기 부적응도식들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 신념이고 느낌이다. 도식은 겉으로 꺼내서 말하지는 않지만 당연시되고 있는 선형적 진실이다.
- (2) 초기 부적응도식들은 자기-영속적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해서 더 많이 저항한다. 도식은 생애의 초기에 발달되기 때문에 자기 개념 및 환경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핵심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도식들은 편안하고 친숙하여서, 도전을 받을 경우 이들의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보를 왜곡하려 들 것이다. 도식의 변화를 향한 위협은 핵심적인 인지적 조직에 대해 너무나도 방해가 된다. 그러므로 개인은 도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인지적 책략을 자동적으로 발휘하게 된다.
- (3) 초기 부적응도식들은 근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고 순환적인 방식을 통해 역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4) 초기 부적응도식들은 대개 특정 도식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 내 사건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다.
- (5) 활성화될 경우 초기 부적응도식들은 기저 가정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서와 훨씬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 (6) 초기 부적응도식들은 아동의 선천적 기질이 태어나서 처음 몇 년 간 부모, 형제 및 또래들과 가졌던 역기능적 경험들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여겨진다. 대부분 도식들은 하나하나의 외상성 사건들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 및 또래들과 일상적으로 늘 진행되고 있는 유해한 경험 형태에 의해서 유발될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 이러한 경험 형태들은 도식을 점진적으로 강화시킨다.

1.2 초기 부적응도식의 형성과 유지

초기 부적응도식의 발생에 대해서 Young(2003)은 핵심적 정서욕구(core emotional need)¹⁾가 아동기 시절에 충족되지 못할 때 부적응 심리도식이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며, 심리도식의 형성을 촉진하는 네 가지 유형의 생애 초기 경험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는 경우, 둘째, 외상 또는 고통을 겪는 경우, 셋째, 만족스러운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경우, 넷째, 중요한 타인을 선택적으로 내면화 혹은 동일시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 외에도 아동의 정서적 기질 또한 심리도식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저마다 다른 기질은 각자 다른 삶의 환경에 선택적으로 노출되게 한다.

부적응 도식이 유지되고 정교화 되는 과정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 내담자는 도식을 확증하는 정보는 강조하고 도식에 반하는 정보는 최소화하거나 부정하는 인지적 왜곡을 통해서 도식을 강화한다. 정서적 측면에서 내담자는 도식과 연결되어 있는 정서를 회피하거나 차단할 수가 있다. 정서가 차단되면 도식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으며, 도식을 변화시키거나 치유할 수 있는 단계를 밟지 못하게 된다. 행동적 측면에서 내담자는 도식을 치유할 가능성이 있는 인간관계는 회피하는 반면, 도식을 촉발하고 영속화시키는 인간관계나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식의 자기패배적인 패턴에 몰두한다(Young, 2003).

1) Young(2003)은 5가지 핵심적 정서욕구를 가정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론과 임상적 관찰로 얻어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5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타인과의 안정애착, 둘째, 자율성, 유능감, 정체감, 셋째, 타당한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자유, 넷째, 자발성과 유희, 다섯째, 현실적 한계 및 자기-통제라고 한다.

1.3 초기 부적응 도식의 종류와 범주화된 요인

여러 연구를 거쳐 초기 부적응 도식은 총 18개로 확인되었으며, 5개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Young, 1990).

(1) 단절 및 거부 : 학대와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부터의 보호, 안전, 양육, 공감, 감정의 공유, 수용, 존중 등에 대한 자신의 요구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① 유기(Abandonment/Instability) : 지지와 연결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믿을만하다고 지각하지 못하는 것.

② 불신/학대(Mistrust/Abuse) :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줄 것이고, 학대를 할 것이고, 굴욕을 줄 것이고, 정직하지 않게 대할 것이고, 거짓말을 할 것이고, 조정하려 할 것이고, 이용하려 들 것이라고 믿는 것.

③ 정서적 박탈(Emotional Deprivation) : 정상적인 정도의 정서적 지지에 대한 욕구를 다른 사람들이 적절히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양육의 박탈, 공감의 박탈, 보호의 박탈)

④ 결함/수치심(Defectiveness/Shame) : 자신은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 천성이 나쁘고, 열등하고, 매우 병약한 사람이며, 사람들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 또는 일단 대면해서 만나보고 나면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사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

⑤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 세상의 나머지 부분들로부터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느낌. 다른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는 느낌. 그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에도 속해 있지 않는 느낌.

(2) 손상된 자율성 및 수행 :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나와서 생존하고 기능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각하지 못하게 하는 자신 및 환경에 대한 생각들.

⑥ 의존/무능(Dependence/Incompetence) :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적 책무들을 유능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⑦ 피해 또는 질병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to harm or illness) : 곧 닥쳐올 것만 같은 커다란 재앙이 언제라도 갑자기 덮칠 것이라는 그리고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과장된 두려움.

⑧ 비분리/미발달된 자아(Enmeshment/Undeveloped self) : 완전한 개별화나 정상적인 사회적 발달을 희생하여 형성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중요한 타인과의 과도한 정서적 관여와 친밀감.

⑨ 실패(Failure) : 자신은 이미 실패했다는,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혹은 기본적으로 또래들에 비해 성취의 영역에서 부족하다고 믿는 것.

(3) 손상된 한계 : 내적인 한계, 타인에 대한 책임 혹은 장기적 목표 지향성 등에 대한 결핍.

⑩ 권능/과대성(Entitlement/Grandiosity) :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믿음, 특별한 권리와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믿음, 보편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침인 호혜성의 법칙에 대해서 자신은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믿음.

⑪ 불충분한 자기통제(Insufficient self-control) : 자신의 개인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기통제 및 좌절 인내를

발휘하는 일 또는 자신의 감정 및 충동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것을 삼가는 일 등에서 광범위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러한 일들 자체를 거부하는 것.

(4) 타인 지향성 :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욕구, 느낌, 반응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

⑫ 복종(Subjugation) : 그래야 한다고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과도하게 포기하는 것.

⑬ 자기 희생(Self-Sacrifice) : 자신의 만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일상 상황에서 타인의 욕구를 자발적으로 충족시키는데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

⑭ 인정 추구(Approval Seeking/Recognition Seeking) : 자아에 대한 안전하고 진실된 느낌을 발달시키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찬성, 인정, 관심을 얻는 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만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5) 지나친 주의경계 및 억압 : 자신의 자발적 느낌, 충동, 선택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는 수행이나 윤리적 행동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직되고 내재화된 규칙 및 기대들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

⑮ 부정성/비관주의(Negativity/Pessimism) :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은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면서 반면 삶의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내내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집중하는 것.

⑯ 정서적 억제(Emotional inhibition) : 자발적 행동, 감정 혹은 의사소통에 대해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

- ⑰ 가혹한 기준/지나친 비판(Unrelention Standards/ Hypercriticalness)
: 행동과 수행에 대한, 매우 높은 내재화된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한다는 기저 신념.
- ⑱ 처벌하기(Punitiveness) : 실수를 할 경우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믿음.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단절 및 거절’ 영역(유기, 불신/학대, 정서적 박탈, 결합/수치심, 사회적 고립)의 5종류 도식만을 살펴볼 것이다(Young, 2003). 석지은(2008)의 연구에 의하면, 각 심리도식 요인에 따른 애착점수의 영향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실시한 결과, ‘단절 및 거절’ 영역이 심리도식 영역 중 가장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이 도식 영역은 초기 양육자에게서 얻지 못한 안전, 안정감, 돌봄, 공감, 감정 공유, 수용, 존중 등의 욕구와 관련되어,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배우자지지를 통해 과거 불만족했던 욕구가 대체 제공되어 충족되면서 관계패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1.4 초기 부적응 도식과 결혼관련 연구와의 관계

초기 부적응도식은 결혼관계의 질과 연관된 연구들에서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지배적이다. 이는 초기 부적응도식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결혼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아지거나 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초기 부적응도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부적상관이 보고되었으며(Nemati, 1996), 이를 확장한 낭만적 관계에서의 친밀감도 동일하게 정서적 결핍 도식, 결합/수치심 도식과 부적상

관이 나타났다(Stiles, 2004; 김시연, 서영석, 2008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김시연, 서영석, 2008; 석지은, 2008; 이지혜, 2009).

2. 성인애착

2.1 성인애착의 정의

유아와 초기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정서적 유대는 Bowlby 등의 발달심리학자들에 의해 애착(attachment)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되었다.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애착은 타인에 대한 이해나 대인관계의 지침이 되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키며, 중요한 타인에 대한 반응패턴에 영향을 끼친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애착모델에서는 애착이 아동을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는데(Collins & Read, 1990; Hazen & Shaver, 1987), 여기에서 애착대상은 부모에서 친구, 연인, 배우자로 전환되어 간다(Lankler, 2005).

이렇게 성인기까지 이어져 개인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애착을 성인애착(adult attachment)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소수의 특정인물을 찾고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안정적 경향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Berman & Spering, 1994; 신노라, 2000; 이시은, 2009), 중요한 타인과의 결속 혹은 유대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애착관계가 형성되면 애착대상과의 근접성을 확보하기 위해 애착행동을 보이며, 특히 공포, 두려움, 질병 등 보살핌이나 배려가 필요한 내적 및 외적 위협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이 생길 때 애착대상을 찾

고, 그 옆에 가까이 있으려는 애착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Bowlby, 1969; Bowlby, 1973), Hazan과 Shaver(1987)는 아동들에게서 관찰된 이러한 애착행동이 성인의 낭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부모와 아동 간 애착 유대의 형성이 사랑에 빠지는 것과 닮았고, 파트너에게서 변하지 않음과 감정적 지지를 찾고 유지하려는 선천적인 동기를 성인들이 가진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은 아마도 아동의 애착 유형 차이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낭만적 관계에서의 성인애착 행동도 결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하였다(Hazan & Shaver, 1987; Scott, 2002). Bowlby 또한 결혼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일이 성인의 애착표현이라고 이야기하였다(Holmes, 1993). 애착관계로서 부부(이성 혹은 연인)관계는 서로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며, 일과 탐구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보호막의 역할까지도 한다(Holmes, 2002; 임정선, 2008). 부부(이성 혹은 연인)관계에서의 애착행동들을 살펴보면, 아동과 비슷하게 육체적 근접함을 찾거나 유지하려고 하고, 육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위로를 받으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애착행동은 배우자나 연인과의 사별, 이별이나 상실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것이 부부(이성 또는 연인)관계를 애착관계로 보는 근거라 할 수 있다(Ainsworth, 1989; 임정선, 2008). 이렇게 Hazan & Shaver가 낭만적 사랑 자체를 애착 과정으로 개념화한 이후 연구자들은 이것을 낭만적 애착(romantic attachment)이라고 명명하였는데(Berman, Marcus & Berman, 1994; Feeney, 1999; Fisher & Crandell, 2001),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성인애착’은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낭만적 성인 애착으로만 개념을 제한하였다.

2.2 성인애착의 유형

앞서 제시했던 연구들에서 유아기의 애착유형이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아기 시절 부모와의 애착유형이 성인기의 현재 애착유형에 영향을 주며, 자신의 애착유형을 유지하려는 경향성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서도 자신과 유사한 성격적 특성을 가진 상대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가 있었다(전효정, 1999).

Hazan과 Shaver(1987)는 낭만적 성인애착을 Ainsworth와 그의 동료들(1978)이 아동의 애착을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개발하여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고(임정선, 2008), 세 가지 애착유형의 성인들 간에 자신과 중요한 타인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또한 부모와의 애착사(attachment history)를 어떻게 상기시키는지의 차이를 밝혀냈다. 안정형으로 스스로를 평가한 성인들은 자신과 자기에게 중요한 타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지각을 가졌다. 그들은 스스로를 친절하고, 온화하며, 호감가고, 다른 사람의 고려, 지지, 보살핌을 받을 만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안정형 성인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한 타인을 믿을만하고, 신뢰로우며, 좋은 의도를 가지고, 편하고 인식하였다. 안정적인 애착을 보이는 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기 쉬웠고, 쉽게 의지하였으며, 그들의 애착대상에게 유기될 것을 거의 걱정하지 않았다. 요컨대 안정형 애착은 신뢰, 접근, 친밀감을 동반한 편안함과 연관되었다. 결론적으로 안정형인 개인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반면에 자신을 불안-양가형으로 분류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감 없고, 이해받기 어려우며, 평가절하되었다고 보았다. 불안-양가형 성인들은 영속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타

인이 마지못해 자신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은 믿을 수 없고, 충실하지 못하면서 자신을 꺼려한다고 믿었다. 불안-양가형인 성인들은 유기를 두려워하고, 자주 애착 대상의 유효성과 헌신을 의심했다. 불안-양가형 성인은 자주 집착하고, 질투하며, 감정적 접근에 몰두한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극도로 가까워지거나 그들의 파트너에게 매달리려는 강한 열망을 가진다. 회피애착 유형으로 자신을 보고한 성인들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보인다. 불안-양가형으로 스스로를 평가한 성인들과 비슷하게 자신의 애착유형을 회피형으로 지지한 성인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자신을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고, 의심스러우며, 냉담하고, 회의적인 사람으로 묘사하였고, 파트너가 믿을 수 없거나 혹은 오랜 관계에서 자신들에게 몹시 전념한다는 관점을 특징적으로 가진다. 또한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였으며, 타인이 자신들에게 가까워지려 시도할 때 어색함을 느낀다는 경향성을 보고하였다. 회피형은 또한 감정적 의존을 거부하려는 바람으로 특징지어진다. 이와 같이, 회피형 성인은 중요한 타인의 요구만큼 그들이 가진 감정적 요구를 무시하여,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어렵게 한다 (Hazan & Shaver, 1987; Scott, 2002).

Collins와 Read(1990)는 Hazan과 Shaver의 질문지가 불연속적인 범주척도라는 것을 지적하며, 친밀, 의존, 불안의 세 가지 애착 유형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또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은 Bowlby의 내적 작동모델에 대한 개념을 체계화하여 네 가지 애착유형 모델을 가지고 ‘자기보고식 관계질문지 (Relationship Questionnaire: RQ)’를 개발하였고, 성인애착을 유형을 안정형(Security), 몰입형(Preoccupation), 거부형(Dismissing-

avoidance), 두려움형(Fearful-avoidance)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Brennan, Clark, 그리고 Shaver(1998)는 기존의 연구와 질문지들을 모아 메타분석을 통해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검사들 사이에서 공통으로 존재하는 2가지 요인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ECR)’를 만들었으며, 성인애착을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이라는 독립적인 두 개의 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회피애착과 불안애착의 높고 낮음에 따라 안정형, 몰입형, 거부형, 두려움형의 4가지 애착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안정형은 높은 자기존중감과 만족감,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 대인관계에서 온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몰입형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 즉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애착대상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거부형은 자신은 사랑받을만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려움형은 자기 부정적 관점과 타인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상처받거나 거부당할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하며 친밀한 관계 맺기를 피하는 특징이 있다(정경아, 2009). 여기에서 Brennan과 그의 동료들(1998)의 분류에 의한 안정형, 몰입형, 두려움형은 Hazan과 Shaver(1987)가 분류한 안정형, 불안-양가형, 회피형과 비슷하다.

2.3 성인애착과 결혼과의 관계

부부의 애착유형에 따른 결혼관계 질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Kobak & Hazan, 1991)에서 애착의 안정성(안정 애착과 불안정 애

착)은 결혼만족도와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eeney, Noller 그리고 Callan(1994)은 배우자의 애착유형보다는 자신의 애착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더욱 관계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한혜영(2006)의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불안과 회피 차원이 결혼만족과 높은 부적상관을 이루었고, 부부 조망수용과 갈등 해결 효능감이 애착의 두 차원과 결혼만족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김광은(2005)은 부부들의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와 부부 갈등 대처 전략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격행동, 공유시간갈등,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배우자 가족 간의 갈등 요인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2.4 성인애착의 변화 가능성

애착에 대하여 초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이 성인기의 애착유형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보인다는 주장들이 지배적인 가운데(Main, Kaplan & Cassidy, 1985), 애착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주장들도 여럿 제기되고 있다. 살펴보면, Bowlby(1973)와 Bretherton(1985)에 의하면, 애착을 결정하는 내적 작동모델이 확고하게 설정된 후에는 가끔씩 중요한 왜곡을 하며 기존의 구조에 그 정보를 동화시키려는 경향성으로 인해 그 변화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내적 작동모델은 두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경험으로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자아 및 타인에 대한 모델은 밀접하게 얽혀 있고, 상호보완적이며 상호 확증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작동모델과 현실간의 경험 사이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져 적합성이 깨어지고 모델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할 때, 작동모델의 변화가 명백하게 나타나며, 현실에 맞게 모델이 조절된다고

Bretherton은 제시하였다(Bretherton, 1988; Bretherton et al, 1990). Shaver, Hazan, 그리고 Bradshaw(1988)도 아동기 부모와 관련된 변인들과 현재 성인기 애착 유형 간의 상관계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그 상관계수는 대상자들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Berscheid(1994)는 1년 동안 3번 반복 측정한 결과 성인 애착 유형에서 22%의 변화율이 나타났다고 하였고, Baldwin과 Fehr(1995)는 메타분석 연구에서 연구 대상들의 30%가 다양한 시간간격을 통해 애착유형이 변화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개인들이 과거에 형성된 도식에만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유대의 성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애착 유형은 이후 양육자의 태도 변화나 친한 친구, 애인, 혹은 배우자와의 또 다른 경험에 의해서도 수정 가능하다고 하다는 제안들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Buelow, McClain, & McIntosh, 1996; Fox, 1995; Halverson, 1988; Nancy, Weinfield, Sroufe & Egeland, 2000; Vaughn, Egeland, Sroufe & Water, 1979; 신노라, 안창일, 2004, 재인용). 그러므로 적절한 변화 요인들을 명확히 밝혀내어 부부상담 혹은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면, 결혼관계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에 더해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성격적 변화의 동반까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5 성인애착과 초기 부적응도식 간의 관계

Bowlby의 내적 작동모델이나 Young의 초기 부적응도식(심리도식)은 둘 다 아동기 경험에서 시작하여 아동이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며, 매우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쉽게 변화되기

는 어렵지만 고정된 틀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Bowlby의 애착 이론과 연결 지어 살펴보면, 초기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내적 작동모델을 발달시키게 되고, 동시에 부적응적인 심리도식을 형성하게 된다(김경숙, 2010, 재인용).

Young은 초기 부적응 도식의 개념이 Bowlby의 이론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초기 부적응 도식으로 애착이 유지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Bowlby(1973)는 인간에게는 익숙한 것을 보존하는 성향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성향 사이에서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하려는 동기가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초기 부적응 도식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 자신의 심리도식에 얽매인 사람들은 심리도식에서 초래된 왜곡들을 바로잡을 수도 있는 새로운 정보를 오해석한다. 그들은 자신의 심리도식을 반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심리도식에 동화시키며, 새로운 증거를 왜곡하고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심리도식을 유지시킨다. 심리치료의 기능은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도식에 반하는 새로운 경험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 심리도식 치유를 촉진하는 것이다(Young, 2003).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Mason과 그의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초기 부적응 도식 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정서적 결핍, 유기, 비분리, 불신/학대, 복종, 사회적 고립, 결합/수치심, 정서적 억압, 의존, 불충분한 자기통제에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석지은(2008)의 연구에서도 기혼자들의 부모와의 애착 유형과 타인 중심성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도식(초기 부적응 도식)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성인애착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초기 부적응 도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각된 배우자 지지

3.1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정의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발생한다. 사회적지지의 정의를 살펴보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제공되는 것으로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볼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 즉,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 친척, 이웃과 같은 중요한 타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으로 도구적 도움, 사회 정서적 도움, 그리고 정보적 도움을 포함한다(House, 1981; 장춘미, 2001, 재인용). 한편 Cobb(1976)은 지지를 개인이 보호와 사랑, 대우를 받고 있고 상호책임관계에 있다고 믿도록 하는 정보로 보기도 하였다.

배우자지지(marital support)는 결혼이라는 밀접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이후 서로에게 다양한 심리·경제적 자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Cutrona(1996)는 남편이나 부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필요에 반응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Weiss와 Heyman(1990)은 배우자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빈도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Gottman(1994)의 연구에서는 고통을 겪는 부부들이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긍정적인 행동은 덜 보이는 반면, 고통을 겪지 않는 부부들은 긍정적인 행동들을 더 많이 보였다고 한다(정교영, 신희천, 2007, 재인용).

한편, 배우자지지는 제공된 지지(provided support)와 지각한 지지(perceived support)로 나뉘볼 수 있는데, 전자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환경적 기제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환경적 기체에 인지적 기제를 더한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도식이 배우자가 제공하는 지지를 인지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리라 예상하였고, 실제로 제

공받은 지지보다는 지각된 지지가 더 유용하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참고하여(Cohen & Syme 1985; Wethington & Kessler, 1986), ‘지각된 배우자지지(perceived marital support)’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3.2 배우자지지와 초기 부적응도식, 성인애착과의 관계

인간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Heller & Swindle, 1983). 배우자 지지 또한 환경적 요인으로써 그 자체로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개인의 인지적 틀을 거쳐 지각된 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Kessler와 McLeod(1985)는 사회적 지지의 지각이 개인의 성격특성에 의해 중재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최근 김시연, 서영석(2008)의 연구에서는 부적응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전체 효과 중 약 3분의 1정도가 배우자 지지를 통해 매개된다고 보고하면서, 이를 부적응도식이 높을수록 배우자지지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이전의 학자들이 제시했던 내용과 일치된다.

배우자지지와 애착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대개 어린 시절의 애착 유형이 사회적 지지를 얻어내거나 지각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는 내용이 다수이다(Kobak & Sceery, 1988; Thompson & Whiffen, 1993; Kunce et al, 1994; Feeney, 1996; Carnaely, Pietromonaco & Jaffe, 1996; 김수진, 2000 재인용). 그러나 애착의 유형은 유아기에서 성인기를 거치면서 달라질 수도 있다(Bretherton, 1988; Bretherton et al, 1990; Shaver, Hazan & Bradshaw, 1988; Berscheid, 1994; Baldwin & Fehr, 1995).

Bowlby(1973)에 의하면 내적 작동모델이 두 개인 간 상호작용의 경험으로부터 발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대인관계 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지지는 애착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착의 유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Jacobson과 Margolin(1979)에 의하면,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부부간의 친밀감이 감소하고 부부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배우자 지지가 배우자와의 관계, 즉 배우자와의 애착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Ⅲ.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기 부적응도식, 성인애착, 지각된 배우자지지, 변인들의 하위요인 간에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1. 초기 부적응도식, 성인애착, 지각된 배우자지지, 변인들의 하위요인 간에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가설 2. 초기 부적응도식은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전체 성인애착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초기 부적응도식은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성인애착의 회피요인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초기 부적응도식은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성인애착의 불안요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문제 3.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때 어떤 모델이 더 적합한가?

가설 5. 각 변인의 하위요인을 나눈 부분매개효과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IV.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기혼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83부가 수거되었으며, 그중 누락된 문항이 많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 38부를 제외한 345부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대, 배우자와 현재 동거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42.94세였고, 평균 결혼기간은 15년 10개월이었으며, 자세한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345)	백분율(%)
성별	남	135	39.1
	여	210	60.9
연령대	20대	19	5.5
	30대	122	35.5
	40대	112	32.5
	50대	80	23.2
	60대	12	3.5
동거여부	동거	334	96.8
	별거	9	2.6
	사별	2	0.6
학력	초졸	1	0.3
	중졸	6	1.7
	고졸	96	27.8
	대졸	198	57.4
	대학원 이상	44	12.8

2. 측정도구

2.1 부적응도식 척도

초기 부적응도식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0)이 개발한 것을 이 미열(2006)이 번안한 Young 도식 질문지 단축형(YSQ-S : Young Schema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각 5문항씩으로 이루어진 총 15개의 도식을 측정하는 75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6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전체점수 및 하위요인의 점수 범위는 최소 1점에서 6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 도식의 특징을 더 나타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초기 부적응 도식의 5요인 중에 단절 및 거절 영역에 포함되는 유기, 불신/학대, 정서적 박탈, 결함/수치심, 사회적 고립의 다섯 종류의 도식 문항들만을 사용할 것이며, 총 문항 수는 25개로 이루어져있다. 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각각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유기가 .92, 불신/학대가 .92, 정서적 박탈이 .92, 결함/수치심이 .92, 사회적 고립이 .92로 나타났었는데(석지은, 2008), 본 연구에서는 전체 .95, 정서적 결핍 .85, 유기 .81, 학대 .88, 사회적 결핍 .79, 결함/수치심 .85로 나타났다.

<표 2> 초기 부적응도식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정서적 결핍	1,6,11,16,21	5
유기	2,7,12,17,22	5
불신/학대	3,8,13,18,23	5
사회적 결핍	4,9,14,19,24	5
결함/수치심	5,10,15,20,25	5

2.2 성인애착 척도

기혼인 성인들의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인기 낭만적 애착 척도(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Brennan, Clark & Shaver(1998)가 개발하고 강진경(2000)이 번안한 것인데, 성인기 애착의 기본적인 두 차원인 ‘회피(avoidance)’와 ‘불안(anxiety)’을 나타내는 각 18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총 36문항으로 이루어진 것을 강진경이 주축요인 분석법과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한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요인으로 재분류하여 요인에 포함되지 않는 2문항을 제외시킨 34문항을 사용하였다.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전체 및 하위요인의 각 점수는 최소 1점에서 5점 사이에 위치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애착의 불안정 차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수와 하위요인의 내용은 아래 <표 3>에 제시되었으며, 강진경의 연구에서 회피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86, 불안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88로 나타났으며, 전체 성인애착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로 드러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회피요인이 .91, 불안요인은 .83이며, 전체 성인애착 척도는 .91로 나타났다.

<표 3> 성인애착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회피	1,3*,4,6,8,9*,10,12,14*,16,18*,20,22,24*,25*,27*,29*,31*,33*	19
불안	2,5,7,11,13,15,17,19,21*,23,26,28,30,32,34	15

* 역코딩문항

2.3 지각된 배우자지지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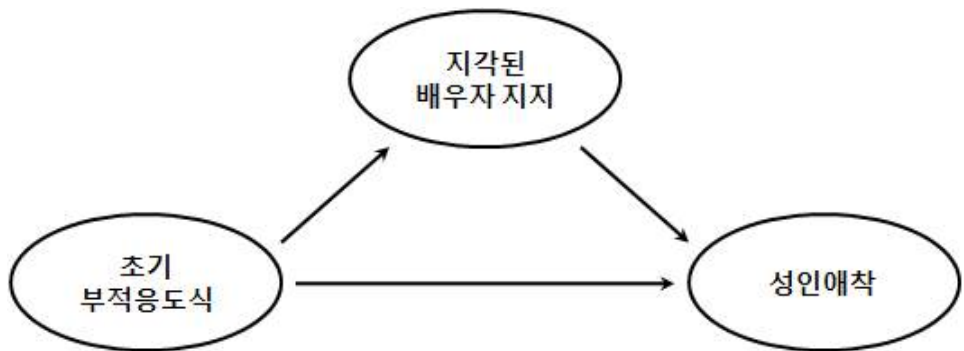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배우자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각된 배우자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김시연, 서영석(2008)이 장춘미(2001)가 Cutrona와 Suhr(1992)의 “사회적 지지행동 코드의 정의”를 바탕으로 박지원(1985)이 제작한 사회적 지지척도와 Pasch와 Bradbury(1998)의 “사회적지지 상호작용 분류체계의 분류에 대한 기술”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부부의 지지척도’ 22문항에서 부정적 지지 척도 요인을 제외한 18문항으로 수정한 것이다. Likert 식 6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있으며, 전체 척도 및 하위요인들의 점수는 최소 1점에서 최대 6점 사이의 값을 얻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 배우자의 지지수준을 높은 것으로 지각함을 의미한다. 김시연, 서영석(2008)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96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존중감지지의 3가지 하위요인의 개별 신뢰도 계수는 .94, .90, .92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정보적지지 .94, 정서적지지 .94, 자존감지지 .93로 나타났으며, 전체 척도는 .98로 확인되었다. 척도의 하위요인 내용과 문항의 구성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지각된 배우자지지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구성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정보적지지	4,8,12,13,16	5
정서적지지	1,2,5,6,7,9,10,14	8
존중감지지	3,11,15,17,18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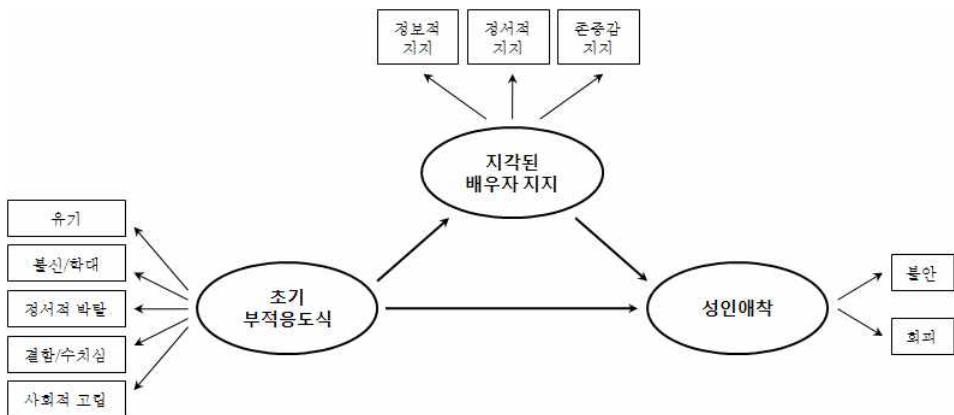
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독립변인으로, 성인애착을 종속 변인으로 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되는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아래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또한, 각 변인들과 하위요인들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각 변인들과 하위요인들

4.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을 통해 분석하였다.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2)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 3) 각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와 첨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 4) 각 변인들(초기부적응도식, 성인애착, 배우자지지, 유기, 불신/학대, 정서적 박탈, 결함/수치심, 사회적 고립, 회피, 불안,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자존감지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5)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6) 본 연구에서 세운 경로식과 연구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 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정상분포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왜곡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조건(편포도 <math>< 2</math>, 첨도 <math>< 4</math>)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편포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그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변인별 내용과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와 첨도(N=345)²⁾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³⁾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부적응도식	정서적결핍	1.78	.83	1.261	1.409
	유기	1.87	.81	1.068	.878
	학대	1.93	.89	1.054	.719
	사회적결핍	1.88	.77	.958	.823
	결함/수치심	1.68	.72	1.297	1.678
성인애착	회피	2.14	.64	.613	.976
	불안	2.16	.66	.666	1.182
배우자지지	정보적지지	4.79	1.00	-.878	.353
	정서적지지	4.88	.91	-.905	.484
	자존감지지	4.76	1.01	-.821	.497

2) '부적응도식'은 독립변인인 초기 부적응도식을 줄인 것이고, '배우자지지'는 매개변인인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줄인 것으로, 이어져 제시되는 표들에서도 동일하게 표기하였다.

3)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지지 척도는 1~6점 사이, 성인애착 척도는 1~5점 사이에 점수들이 위치한다.

2. 주요변인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인 초기 부적응도식, 성인애착, 지각된 배우자지지, 유기, 불신/학대, 정서적 박탈, 결합/수치심, 사회적 고립, 회피, 불안,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자존감지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초기 부적응도식은 종속변인인 성인애착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r = .685, p < .001$),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배우자지지와는 부적상관을 드러냈다($r = .507, p < .001$). 이는 초기 부적응도식이 높을수록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이 불안정하며, 상대 배우자의 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기 부적응도식의 하위 요인 중 결합/수치심이 전체 성인애착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 = .630, p < .001$), 학대, 사회적 결핍, 유기, 정서적 결핍 순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드러냈다. 또한 배우자지지의 하위 요인 중 전체 성인애착과 정서적지지가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r = -.699, p < .001$) 자존감지지, 정보적지지 순으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한편 배우자지지는 회피와 높은 부적 상관($r = -.723, p < .001$)을 보였으며, 불안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r = -.458, p < .001$). 각 변인 간 상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각 변인 간 상관계수

변인	1	1-1	1-2	1-3	1-4	1-5	2	2-1	2-2	2-3	3	3-1	3-2
1. 부적응도식													
1-1. 정서적결핍	.805***												
1-2. 유기	.804***	.525***											
1-3. 학대	.874***	.600***	.629***										
1-4. 사회적결핍	.884***	.626***	.625***	.734***									
1-5. 결함/수치심	.896***	.669***	.643***	.733***	.802***								
2. 배우자지지	-.507***	-.480***	-.355***	-.432***	-.444***	-.488***							
2-1. 정보적지지	-.473***	-.465***	-.323***	-.391***	-.414***	-.422***	.959***						
2-2. 정서적지지	-.502***	-.460***	-.355***	-.435***	-.443***	-.444***	.974***	.899***					
2-3. 자존감지지	-.486***	-.463***	-.344***	-.418***	-.422***	-.423***	.956***	.889***	.891***				
3. 성인애착	.685***	.532***	.540***	.614***	.606***	.630***	-.719***	-.685***	-.699***	-.694***			
3-1. 회피	.496***	.431***	.304***	.463***	.451***	.468***	-.723***	-.705***	-.701***	-.685***	.873***		
3-2. 불안	.674***	.467***	.639***	.582***	.579***	.606***	-.458***	-.417***	-.447***	-.459***	.799***	.405***	

*** $p < .001$

3.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 효과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절차를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의 절차에 의하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2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의 효과(β 값)에 비해 유의하게 줄어들어야 한다. 즉, 마지막 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이전 단계에서보다 더 약하게 나타나면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매개변인의 효과를 통제하고 남은 독립변인의 효과가 '0'에 가까울수록 매개효과는 큰 것이며, '0'이 되면 완전한 매개효과를 지닌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Kenny, 2001).

회귀를 보기 전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초기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지지, 성인애착, 각 하위요인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냄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킨다.

3.1 초기 부적응도식과 전체 성인애착 사이의 배우자지지 매개효과

먼저 초기 부적응도식이 전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우선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적응도식을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배우자지지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적응도식을 종속변인인 성인애착에 회귀시켰고, 3단계에서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지지를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성인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배우자지지는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7>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

단계	변인	β	R ²	Δ R ²	F
1 독립 → 매개	부적응도식 → 배우자지지	-.507***	.257	.255	118.658
2 독립 → 종속	부적응도식 → 성인애착	.685***	.470	.468	303.863
3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부적응도식 → 성인애착 배우자지지 → 성인애착	.432*** -.500***	.656	.654	325.874

*** $p < .001$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적응도식이 배우자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으며($\beta = -.507, p < .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고($\beta = .685, p < .001$),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배우자지지가 성인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500, p < .001$). 그리고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력($\beta = .685, p < .001$)이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 = .432, p < .001$). 그러므로 배우자지지는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2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회피요인 사이의 배우자지지 매개 효과

다음으로 초기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의 회피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적응도식을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배우자지지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적응도식을 종속변인인 성인애착의 회피요인에 회귀시켰고, 3단계에서는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지지를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성인애착의 회피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배우자지지는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의 회피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8> 초기 부적응도식과 회피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 효과

단계	변인	β	R ²	Δ R ²	F
1 독립 → 매개	부적응도식 → 배우자지지	-.507***	.257	.255	118.658
2 독립 → 종속	부적응도식 → 회피	.496***	.247	.244	112.215
3 독립 → 종속 매개 → 종속	부적응도식 → 회피 배우자지지 → 회피	.175*** -.635***	.546	.543	205.463

*** $p < .001$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적응도식이 배우자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으며($\beta = -.507, p < .001$),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도 부적응도식이 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고($\beta = .496, p < .001$),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배우자지지가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 = -.635, p < .001$). 그리고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적응도식이 회피에 미치는 영향력($\beta = .496,$

$p<.001$)이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175$, $p<.001$). 그러므로 배우자지지는 부적응도식과 회피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3.3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불안요인 사이의 배우자지지 매개 효과

다음으로 초기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의 불안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인으로 부적응도식을 투입하고, 매개변인으로 배우자지지에 대한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인 부적응도식을 종속변인인 성인애착의 불안요인에 회귀시켰고, 3단계에서는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지지를 모두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성인애착의 불안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배우자지지는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의 불안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9> 초기 부적응도식과 불안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 효과

단계	변인	β	R ²	Δ R ²	F
1 독립 → 매개	부적응도식 → 배우자지지	-.507***	.257	.255	118.658
2 독립 → 종속	부적응도식 → 불안	.674***	.454	.452	285.074
3 독립 → 종속	부적응도식 → 불안	.594***	.472	.469	152.933
매개 → 종속	배우자지지 → 불안	-.157**			

*** $p<.001$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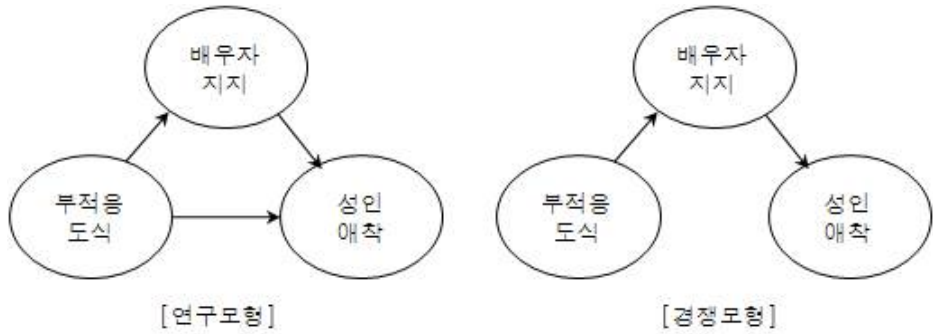
첫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적응도식이 배우자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검증되었으며($\beta=-.507$, $p<.001$), 두 번째 회귀 방

정식에서도 부적응도식이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쳤고 ($\beta=.674, p<.001$),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 변인인 배우자지지가 불안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beta=-.157, p<.01$). 그리고 두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 부적응도식이 불안에 미치는 영향력($\beta=.674, p<.001$)이 세 번째 회귀 방정식에서는 줄어들었다($\beta=.594, p<.001$). 그러므로 배우자지지는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구조방정식 모형의 검증

SPSS 18.0를 통해 알아본 매개 경로를 재검증하고, 변인들의 하위 요인을 함께 고려하기 위해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18.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링은 관련이론과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제안모형을 구축하고, 제안모형을 다른 이론이나 기타 문헌에서의 반박주장 및 간명도의 원리 등에 따라 여타 경쟁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는 접근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러한 접근법을 대안모델전략(alternative model strategy) 또는 경쟁모델전략(competing model strategy)이라 한다(Joreskog & Sorbom, 1993; 배병렬,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앞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고,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하여 두 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각 모형은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그림 3>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4.1 배우자지지 매개모형 검증

χ^2 검증은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내포(nested)되어 있는 경우 모형비교를 위한 검증을 하는 것으로, 각 모형들의 χ^2 과 자유도 값이 증가 혹은 감소됨에 따라 유의도 수준을 비교하여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방법이다(배병렬, 2007). 그러나 χ^2 검증은 $F \times (\text{표본크기} - 1)$ 의 값을 통해 결정되므로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김주환 외,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χ^2 값과 자유도에 더하여 χ^2 검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들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GFI(goodness-of-fit-index)는 보편적으로 권장되는 수용수준은 .09이상이며, 표본크기가 200이상이면 제안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CFI(comparative fit index)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본다. TLI(Turker-Lewis index)는 기초모델에 대해 제안모델과 대안모델의 비교를 위해 모델의 간명도(즉, 자유도)를 결합하여 측정된 것으로, 권장 수용기준은 .90이상이다. SRMR(standardized RMR)은 공분산 잔차의 평균을 표

준화한 것으로 .08이하이면 모델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적합도가 나쁜 모델이면 그 값은 커지게 된다⁴⁾(배병렬, 2007).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05면 좋은 적합도, <.08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면 보통 적합도, >.10이면 나쁜 적합도로 본다(Browne & Cudeck, 1993; 김주환 외, 2009).

초기 부적응도식이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를 통해서 성인애착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 두 모형을 검증하여, <표 10>에 두 모형의 적합도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할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10> 경쟁모형의 적합도 (N=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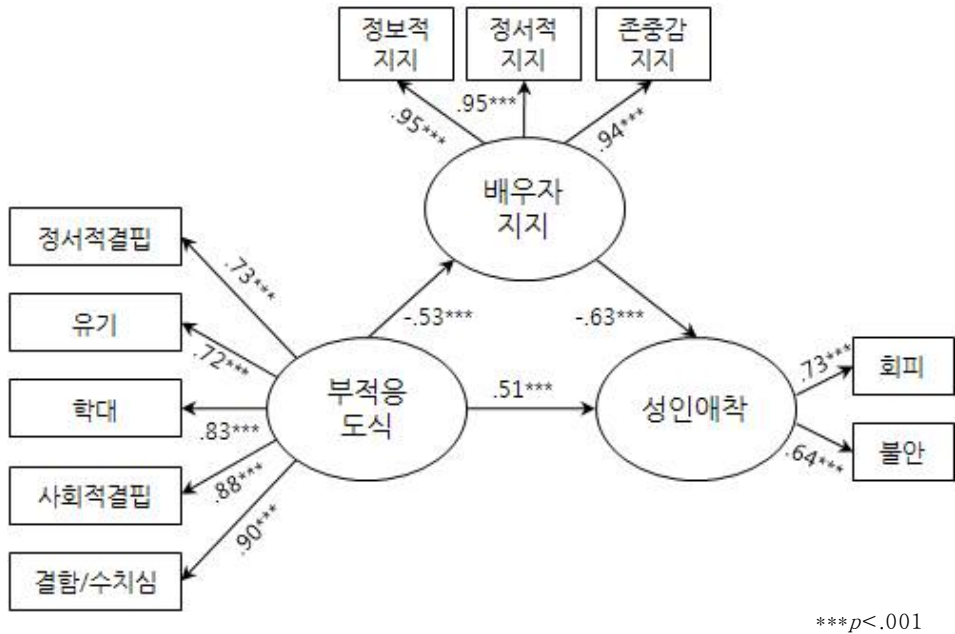
모형	χ^2	df	p	GFI	CFI	TLI	SRMR	RMSEA
경쟁모형	218.5	34	.000	.897	.937	.916	.118	.126
연구모형	138.1	33	.000	.924	.964	.951	.066	.096

완전매개모형인 경쟁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각각 비교해보면 경쟁모형에서는 CFI, TLI는 .90이상이나 GFI가 .90이하, SRMR이 .08이상, RMSEA가 .10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연구모형에서는 경쟁모델과 비교해보았을 때 비록 자유도 하나를 상실하였으나 χ^2 값이 .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낮아졌다. 또한 GFI, CFI, TLI가 모두 .90이상, SRMR이 .08이하, RMSEA가 .10이하로 나와 수용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모형 적합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모형을 채택하였다.

4) Williams and Hazer(1986).

4.2 모형에서 나타난 경로계수와 매개효과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간 관계에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형적합도가 검증된 연구모형을 대상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4> 초기 부적응도식, 지각된 배우자지지, 성인애착의 경로계수

<표 11>에 제시된 경로계수들을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초기 부적응도식이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초기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SPSS의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11>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모수추정치	S.E.	C.R.
배우자지지 ← 부적응도식	-.777(-.527)***	.077	-10.142
성인애착 ← 배우자지지	-.312(-.631)***	.027	-11.485
성인애착 ← 부적응도식	.374(.512)***	.040	9.299

모수추정치의 숫자는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는 괄호 안에 제시. *** $p < .001$

또한, 모형의 검증성을 높이기 위해서 Sobel test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는 Zab 값이 7.600765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직접, 간접 효과

영향력의 크기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유의미한 경로계수가 입증된 경로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를 알아보았다. 경로계수를 통해 살펴보자면, 초기 부적응도식이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주었을 때 경로계수는 $.332(.527 \times .631)$ 이었고, 초기 부적응도식이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하지 않고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경로계수는 .512였다. 이를 통해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적응도식을 통해 달라진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통해 성인애착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모형의 변인들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계수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주요 변인들의 직접, 간접 및 총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적응도식	배우자지지	-.527	.000	-.527
	성인애착	.512	.332	.844
배우자지지	성인애착	-.631	.000	-.631

살펴보면, 부적응도식은 배우자지지 변량의 28%를 설명하였고, 배우자지지는 성인애착의 변량을 40%만큼 설명하였다. 그리고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지지는 성인애착 변량의 71%만큼을 설명하였다.

VI.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자를 대상으로 초기 부적응도식이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성인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관계에 영향을 주는 영속적인 변인으로만 인식되었던 성인애착을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부적응도식(정서적 박탈, 유기, 불신/학대, 결합/수치심, 사회적 고립)과 성인애착(불안, 회피), 지각된 배우자지지(정보적지지, 정서적 지지, 존중감 지지)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초기 부적응도식이 높을수록 성인애착이 불안정하고, 배우자에 대한 성인애착의 회피요인과 불안요인이 증가하며, 배우자지지 수준을 낮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간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나타나는 것은 석지은(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초기 부적응도식과 지각된 배우자지지 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나는 것은 앞선 연구들(Heller & Swindle, 1983; 김시연, 서영석, 2008)과 맥락을 같이하였다. 또한 지각된 배우자지지와 성인애착의 불안정 간의 부적 상관은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부부간 친밀감이 감소하고 관계에 긴장이 생긴다는 Jacobson과 Margolin(1979)의 보고와도 일치된다.

둘째,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사이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가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를 검증해본 결과, 지각된 배우자지지가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가설 2는 지지되었다. 즉, 초기 부적응도식은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거쳐서 성인애착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종속변인인 성인애착의 두 요인을 나누어서 효과를 살펴본 결과, 회피와 불안 모두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과 가설 4는 지지되었다. 회피요인은 초기 부적응도식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의 매개를 거쳤을 때 설명력($\beta = -.635, p < .001$)이 훨씬 더 유의해진 반면, 불안요인은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거쳤을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있으나 회피요인에 비해서는 효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57, p < .01$).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앞서 나타난 상관점수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전체 독립변인인 초기 부적응도식의 점수와 독립변인의 하위요인 중 유기도식의 점수가 종속변인의 하위요인인 불안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는 유기도식이 애착대상을 안정적이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Hazan과 Shaver(1987)가 구분했던 유기를 두려워하고, 애착대상의 유효성과 헌신을 의심하는 불안 차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Mason과 그의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 ECR⁵⁾로 측정된 애착유형 집단들 간의 초기 부적응도식의 차이를 Turkey HSD으로 비교해본 결과, 불안차원이 높은 집단(몰입형, 두려움형)과 낮은 집단(안정형, 거부형)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는 것도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검증하고, SPSS를 통한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본 매개경로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

5)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척도(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ECR): p 15 참조

형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에 대한 배우자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각각 설정하고, 두 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매개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혹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값과 자유도를 포함한 모형 적합도 지수들을 고려했을 때, 부분매개모형인 연구모형이 채택되었으며, 가설 5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초기 부적응도식이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성인애착에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기 부적응도식이 높을수록 성인애착의 불안정 수준이 높아질 것이고, 배우자지지를 낮게 지각하게 하며, 낮아진 배우자지지가 또한 성인애착의 불안정 수준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형에서 변인의 설명량을 추정해보았을 때, 부적응도식은 배우자지지 변량의 28%를 설명하였고, 배우자지지는 성인애착의 변량을 40%만큼 설명하였다.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지지는 성인애착 변량의 71%만큼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초기 부적응도식이 성인애착의 회피와 불안차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의 관계에서 지각된 배우자지지가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각된 배우자지지를 통한 매개경로는 성인애착의 회피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성인애착의 불안요인은 지각된 배우자지지와는 덜 관련되고, 초기 부적응도식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치료에서 중요한 임상적 함의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관계패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의 ‘단절

및 거부'와 관련된 초기 부적응도식을 파악하여 다루어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은 정신역동 부부치료 모델들에서 공통적으로 현재의 부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기의 관계경험에 대해 초점을 둘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취하는 것으로(정교영, 신희천, 2007), 인지적 도식의 수정을 기본으로 하는 인지행동치료 모델이 발달심리학적 측면과 정신역동적 모델의 입장을 수용한 통합적 부부치료 모델로 나아갈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결과이다.

더하여 불안정한 성인애착 패턴을 보이는 내담자들을 개입할 시 추가적으로 배우자지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민감성을 높이고,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지지행동을 격려하고 유도함으로써 더 효과적인 관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작업은 정서적 결핍과 거리감을 보이고, 파트너에 대해 의심스러워하며, 자신에게 전념하는 특성을 지닌 회피애착 성향의 부부치료 내담자들을 개입할 때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유기를 두려워하며, 배우자의 유효성과 헌신을 의심하는 특성을 지닌 불안애착 성향의 사람들 또한 배우자지지의 정도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졌다. 그러나 회피애착 성향의 내담자들에 비해 불안애착 성향의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초기 부적응도식을 다루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차이는 불안애착 성향의 내담자들의 경우 배우자의 지지를 너무 긍정적으로 인식해버리거나 혹은 높은 기대로 인하여 불충분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덜 발휘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왜 성인애착 유형 간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더 탐구해본다면 임상장면에서 유용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2. 제한점 및 제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들의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 표집에 있어서 30~40대의 연령층과 고학력자들, 여성에 집중되어 표본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과 임상표본으로 연구를 확대하여 반복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변인들을 측정하는 방법 면에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서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피검자들의 반응태도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초기 부적응도식, 지각된 배우자지지, 성인애착을 재는 척도들이 본 연구에서나 선행연구들에서 신뢰도가 입증되었지만, 부적응도식이나 배우자와의 성인애착을 측정한 도구들의 경우 추상적이고, 의식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 한계를 가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설문조사를 통해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제 부부치료 장면에서 초기 부적응도식과 배우자지지에 대한 개입을 하였을 때 성인애착의 불안정 수준을 명확히 낮춘다는 경험적 증거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치료적 요인들을 활용하여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비교하여 성인애착 유형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이 의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각 개인으로만 측정하고, 부부 두 사람을 각각 대응시켜 비

교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특히 배우자지지의 경우, 개인이 지각한 배우자의 지지 정도를 과약하였기 때문에 실제 배우자가 제공한 지지와는 양적·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처치를 받더라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초기 부적응도식과 성인애착 간의 매개변인으로 지각된 배우자지지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배우자지지 이외에도 여러 변인들이 이 둘의 사이를 매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추후에는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진경 (2000). 아동기의 부모에 대한 내적 표상과 성인기의 낭만적 애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숙 (2010). 애착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간의 관계: 심리도식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 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수진 (2000). 애착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시연, 서영석 (2008). 부적응도식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부부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243-1265.
- 김시연, 서영석 (2010). 스트레스, 배우자지지, 결혼만족 간 관계: 자기효과 및 상대방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2), 189-213.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커뮤니케이션 북스.
- 배병렬 (2007). Amos 17.0 구조방정식의 모델링 -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석지은 (2008). 애착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 심리도식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개념, 효능감, 대처양식, 사회적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유성진, 권석만 (2008). 심리치료에서 도식과 양식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91-117.

이미열 (2006). 청소년기 애착과 우울증과의 관계: 초기 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숙, 우희정, 노명희, 최정미 (1999). 부부의 애착유형과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19.

이시은 (2009). 대학생의 부모-자녀 결합 형태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또래애착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481-499.

이지혜 (2009). 부적응 도식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정선 (2008). 성인애착유형과 결혼, 이성교제 경험, 상실의 경험여부 및 관련변인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2), 411-428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춘미 (2009). 스트레스와 결혼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부의 지지행동 및 갈등해결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1) 153-171.

전효정 (1999).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성인기 애착유형과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보육연구*, 5[1999], 21-34.

정경아 (2009). 기혼남녀의 성인애착, 공감능력 및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교영, 신희천 (2007). 부부치료의 주요 이론적 접근과 최근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1-30.
- 지혜정 (2002).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영, 현명호 (2006).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 부부조망수용과 갈등해결 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4) 935-952.
- 홍혜정 (2004). 부부의 애착유형 및 결합형태와 결혼적응. 충북대학교 대학원.
- Ainsworth, M., Blehar, M., Water,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aldwin, M. W., & Fehr, B. (1995). On the instability of attachment style ratings. *Personal Relationships*, 2(3), 247-261.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6, 51(6), 1173-11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91, 61(2) 226-244.
- Baucom, D. H., Epstein, N., & Lataillade, J. J (2002). Cognitive-behavioral couple therapy. In A. S. Gurman & N. S. Jacobso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 26–58).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J. S. (1995). *Cognitive therapy: basics and beyon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ck, A. T., Emery, G., & Greenberg, R. L. (1985) *Anxiety disorders and phobias: A cognitive perspective*. Basic Books, New York.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rman, W. H., Marcus L., & Berman, E. R. (1994). Attachment in marital relations. In M. B. Sperling & W. H. Berman(Eds.), *Attachment in adult*(pp. 204–231).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rscheid, E. (1994).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79–129.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79).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London: Tavistock.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3–35.
- Bretherton I. Open communication and internal working models: Their role in the development of attachment relationships. In: Thompson RA, editor.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8, 36, 57–113.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in couples: Effects of self and partner. *Personal Relationships*, 3, 3, 257–278.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hen, S., & Hoberman, M.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83, 13, 2, 99–125.
- Cohen, S., & Syme, S. L. (1985). Issues in the study and application of social support. In S. Cohen &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San Francisco: Academic.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utrona, C. E. (1996). *Social support in couples*. New York: Sage.
- Dattilio, F. M., & Padesky, C. A. (1990). *Cognitive therapy with couples*.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Inc. Sarasota, FL.
- Dattilio, F. M. (1993). Cognitive techniques with couple and families. *The Family Journal*, 1, 51–56.
- Feeney, J. A. (1996). Attachment, caregiving,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3, 401–416.
- Feeney, J. A. (1999). Adult attachment, emotional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6, 169–185.
- Feeney, J. A., Noller, P., & Callan, V. J.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5, 269–308.
- Fisher, J., & Crandell, L. (2001). Patterns of relating in the couple. In C. Clulow (Ed.), *Adult attachment and couple psychotherapy: The “secure base” in practice and research*, 15–27. London: Brunner–Routledge.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Lawrence Erlbaum, Hillsdale, NJ, 1994.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eller, K. & Swindle, R. W. (1983). Social network,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coping with stress. In R. D. Felner L. A. Jason J. N. Moritsugu, & S. S. Farber(Eds.), *Preventive Psychology : Theory, research and practice*(pp. 87–103). New York : Pergamon Press.
- Holmes, J. (1993). *John Bowlby and Attachment Theory*. Taylor & Francis Books Ltd.
- Holmes, J. (2002). *John Bowlby and die Bindungstheorie*. Muenchen; Basel: Reinhardt.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d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 636–654.
- House, J. S.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Reading, MA: Addison–Wesley.
- Jacobson, N. S., & Gurman, A. S. (1995).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Jacobson, N. S.,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Strategies based on social learning and behavior exchange principles*. New York: Brunner/Mazel.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ntin*, 118, 3–34.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vutons of

-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9–486.
- Kessler, R. C., & McLeod, J. D. (1985).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in community samples. In S. Cohen & S. 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219–240). Orlando, Academic Press.
- Kobak, R. R., & Hazan, C. (1991). Attachment in marriage: Effects of security and accuracy of working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861–869.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 *Child Development*, 59, 135– 146.
- Kunce, L. J., Shaver, P. R. (1994). An attachment-theoretical approach to care-giving in romantic relationships.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 in adulthood(pp.205–237). London: Jessica Kingsley.
- Lankler, I. S. (2005). Adult attachment styles and relationships themes: Is there an empirical link?.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 styles and attachment style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s and to

-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 439–471.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n the Society and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66–104.
- Mason, O., Platts, H., & Tyson, M. (2005).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adult attachment in a UK clinical population.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78, 549–564.
- Nemati, M. C. (1996). A structur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 Pasch, L. A., & Bradbury, T. N. (1998). Social support,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marital dysfun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219–230.
- Scott, R. L. (2002)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attributions for romantic partners' negative behavior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2]
- Shaver, P., Hazan, C., & Bradshaw, D. (1988). Love as attachment. In R. J. Sternberg & M. L. Barnes (Eds.), *The psychology of love*, 68–99.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Weiss, R. L. & Heyman, R. E. (1990). Observation of marital

interaction.(In F. D. Fincham & T. N. Bradury (Eds.),
The psychology of marriage: Basic issues and applications
(pp. 87--117). New York: Guilford.)

Wethington, E., & Kessler, R. C. (1986). Perceived support,
received support, and adjustment to stressful life ev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7, 78-88.

Young, J. E. (1990).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 Press.

Young, J. E. (1999).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rev. ed.). Sarasota, FL;
Professional Resources Press.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ived Marit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Adult attachment style

Koo, Sung-hee
Dep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ived marit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adult attachment styles among married couples. The subjects were three hundred forty five married people recruited from the whole South Korea. Young's Schema Questionnaire, Multi-item Measure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Perceived Marital Support scale were administered to married couples.

The data was analyzed through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early maladaptive schema, adult attachment

and perceived marital support. The higher early maladaptive schema level showed, the higher adult attachment level and the lower perceived marital support level.

Second, the perceived marital support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maladaptive schema and adult attachment.

Third,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performed, and the study model's fitness indicated tha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model was accepted.

Finally,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recommended.

Key words : Maladaptive schema, Adult attachment, Partner attachment, Marital support, Mediating Effect

부 록

부록 1. 부적응도식 척도

부록 2. 성인애착 척도

부록 3. 지각된 배우자지지 척도

부록 1. 부적응도식 척도

다음은 사람들이 자신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각 문장들을 잘 읽고 자신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표시하십시오.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옳은 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기 보다는 평소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따라 응답해주시고, 한 문항도 빠짐없이 답변해주시시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게는 나를 보살펴주거나, 나와 마음을 나누거나,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두려워 그들에게 매달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부적격자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 결점을 알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감싸주고,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주변사람들을 잃을까봐 걱정이 된다. 내게는 그들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들과 함께 있을 때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 내가 방심하면 그들이 나를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근본적으로 남들과는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도 내 곁에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느꼈던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내가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거나 버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나는 어디에도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외톨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진정으로 나에게 귀를 기울이거나 나를 이해해주거나 내 진정한 욕구와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서 멀어지려 한다고 느끼면,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동기가 매우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내게 좋은 충고를 해주거나 방향을 제시해 줄 믿음직한 사람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때때로 나는 사람들이 떠나버릴 까봐 너무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 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나는 보통 상대방이 무슨 다른 속셈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 경 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는 어떤 모임에서도 겉도는 느 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나는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솔직하게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2. 성인애착 척도

아래의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해당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정답은 없으므로 최대한 자신에 관하여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에게 내 속의 깊은 감정을 보여 주기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에게 버림을 받을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배우자와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배우자가 나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나는 내 자신이 배우자와 멀어지는 것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만큼 배우자는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을까봐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배우자가 나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배우자와 헤어지게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배우자에게 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편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배우자에 대해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배우자도 나에게 그렇게 느끼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배우자와 가까워지고 싶지만 실제로는 계속 멀어지기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종종 배우자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지만, 이런 나의 모습이 배우자를 겁나게 해서 멀어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배우자가 나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 신경이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13. 배우자 없이 혼자 있게 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배우자와 나의 사적인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배우자와 매우 가까워지려는 바람은 때때로 배우자를 겁나게 해서 멀어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배우자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피하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배우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확인 받는 것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배우자와 가까워지는 것은 쉬운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9. 때때로 나는 배우자에게 더 많은 감정과 더 많은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강요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배우자에게서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배우자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싫다.	①	②	③	④	⑤
23. 만약 내가 배우자의 관심을 끌 수 없으면, 나는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24.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보통 배우자에게 내 문제와 고민을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배우자가 없을 때, 나는 다소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27. 배우자에게 의지하는 것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8.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옆에 있어주지 않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9. 배우자에게 위로와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30. 배우자를 필요로 할 때, 배우자가 없으면 좌절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힘들 때, 배우자에게 기대는 것이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2.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것을 맘에 들어 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기분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33. 안락감과 위로 등을 포함한 많은 부분들에서 배우자에게 기대다.	①	②	③	④	⑤
34. 배우자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3. 지각된 배우자지지 척도

다음은 결혼생활 내내 귀하에게 배우자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잘 읽고 해당되는 문항에 ✓ 표시하십시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배우자는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배우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내가 필요하고, 가치로운 존재임을 배우자는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이야기를 주의 깊게, 진심으로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의논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그에 응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그 일을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건전한 충고를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배우자는 개인적인 사항이나 비밀을 지켜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배우자는 아프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을 때, 역할이나 책임을 대신 맡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배우자는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배우자는 내가 선택을 해야할 때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배우자는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리게끔 자극을 주고 용기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내가 힘들어할 때, 배우자는 시간이나 물질, 노력을 들여 도울 수 있는 일들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배우자는 장점을 칭찬해주고, 능력을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배우자는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배우자가 기분이 언짢을 때, 기분을 이해하고 전환시켜주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배우자는 의견을 존중해주고 받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